

# 해 외 자 료

## 電氣事業에 迫頭한 燃料의 危機

### —최근 미국의 연료사정을 중심으로—

근래에 들어와서 미국의 전력사업은 연료수급의 차질과 더불어 「오염방지법」에 의한 사용연료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곤란한 문제가 증첩됨으로써 중대한 연료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석탄과 가스의 공급부족은 심각한 도를 더하여 석탄의 저장량은 정상시의 반정도에 불과하며, 가스의 점진적인 공급부족은 어떠한 위기적사태를 야기시킬지도 모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게된 미국전력사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본다.

(박친규)

#### 1. 심각한 석탄부족

##### (1) 수급의 꺾박

1968년 3/4분기경부터 갑자기 공급부족을 보기 시작한 석탄은 그후 점차적으로 사태가 호전되었다 하여도 발전용연료의 5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전기사업은 아직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을 상세히 고찰하여 본다면 미국에서의 산탄량은 수년간 연간 약 5억5,000만톤(일정한 대비산탄)이며 이에 반하여 1963년도 이후 서서히 증가를 보인 수요는 1968년도에 와서는 약4,000만톤의 수요초과를 보였

으며 1969년도에는 아직 미확정이나 그 이상의 부족이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전기사업에 있어서의 석탄소비량은 해마다 증가도상에 있으며 1967~1969년의 3년간은 석탄소비량의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하여 앞으로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지연으로 석탄의 경제성이 또다시 재인식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경향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석탄수급의 차질에서 오는 긴박의 도는 발전소가 산탄지와 인접해 있으나에 따라 그 심각한도가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석탄(발전용으로는 청탄) 자원은 서부산악지대에 편재하고 있는

연료별로 본 미국의 발전설비용량 상정표

(표-1)

(연료 : 100단kw)

구분	연도	1970	1975	1980	1985
석	탄	180	210	280	370
원	자	40	80	160	300
가	스	70	90	110	140
석	유	50	50	55	60

자료 : 해외 전력

(단 : 수치는 개산임)

석탄시장의 추리(역청탄)

(표-2) (단위: 100만톤)

구분	연도			
	1950	1960	1968 (추정)	1975 (예측)
전 력	88	174	293	290
부 산 물	104	81	92	98
일 반 사 업	117	93	101	112
철 도	61	2	—	—
기 타(소매)	84	30	16	11
소 계	454	380	502	511
카 나 다	23	12	17	23
수 출	2	25	35	40
소 계	25	37	52	63
재 고	37	-1	NC	NC
누 계	516	416	554	574

자료: 미국광산국지장조사부

관계로 남서부 또는 중서부의 각 발전소들은 저탄량이 감소되어 감에 따라 그 사태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철도파업으로 인한 연료운송의 차질도 심각한 것으로서 1969년 4월 1일 연방동력위원회(Federation Power Committee FPC)가 발표한 철도파업이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은 표-3과 같다.

이러한 철도파업이 발생함으로써 동파업이후 최초 10일간에 남서부는 2,523MW의 발전저하를 가져 온 것으로 추정되며 하원은 특별입법조치로 최악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FPC발표에 의하면 1969년 4월 1일 현재(TVA는 4월 6일)에 있어서 주요한 각 발전소의 저탄량은 다음과 같다.

중태에 있어서의 각 발전소의 평균 저탄량—1967년말 88일분, 1968년말 71일분—에 비하여 현재 각사

철도파업으로 인한 발전출력저하(추정)

(표-3) (단위: MW)

	10 일	15 일	20 일	25 일	30 일
북 서 부	70	456	962	1,142	3,053
동 부 중 앙	—	—	394	794	3,054
남 동 부	2,523	3,551	9,014	10,499	14,600
중 서 부	625	2,343	4,707	6,806	9,348
남 부 중 앙	—	—	—	—	—
서 부	—	—	—	115	115
계	3,218	6,350	15,077	19,356	30,170

(표-4) 주요 발전소별 저탄량

전 력 회 사	소 속 발 전 소	발전량 (MW)	석탄재고량(단위: 1일분)		비 고
			현 재 (1969. 4. 1)	평 시	
베 루 고 사	제 스 타·윌 드	1,000(#5 #6)	18	60~70	1968(11월) ※TVA의 평상저탄량은 75~90일분임
	브 레 보	254	19	〃	
듀 그·파 워 사	리 바 멘 도	631	19	〃	
	킹 스 톤	7,100	10	26	
가 라 친	15		〃		
클 바 도	13		23		
위 도 스·크 리 크	12		30		
세 비 아	8		〃		
Commonwealth·Edison Co.	릿 지 란 드	690	20	40~50	
	스 테 이 트·라 인	972	〃	〃	
	워 크 간	1,043	〃	〃	

전 력 회 사	소 속 발전 소	발전량(MW)	석탄제조량(단위:1일본)		비 고
			현 재 (1969. 4. 1)	평 시	
Wisconsin P&L 사	에 제 · 워 다	425	12	60	
Wisconsin 전력사	바 레 이	250	15	90	

의 보유량은 급속히 악화하고 걱정량을 하회함으로써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예상되는 1969년 3/4분기에는 일부지역내에 석탄부족으로 인한 정전에까지 도달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석탄부족은 지방가격의 상승을 촉진하고 일부 악덕업자는 종래의 석탄공급계약을 파기하고 횡류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재판문제까지 사태가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석탄업자를 고소하는 전기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펜실바니아전등전력사는 1968년 11월, 석탄공급업자 바나스체 & 닥가씨가 1965년에 체결한 계약을 1968년 10월 이후에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계약이행과 1,700만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이다. 아메리카 전력회사 제얼하의 켄터키전력사는 A. R. C 공업사와 그의 산하에 있는 스탠다드 싸인 & 시그널사가 Big Sunday 발전소에 인제한 석탄을 공급하라는 명을 받고 가집행을 함으로써 제퍼슨 순회재판에서 승소하였다.

최근의 예로는 TVA가 켄터키주 로스베리지방재 판소에 대해 라화이트트석탄회사(시카고), 베로광산 회사, 브랙 · 범광산회사(켄터키)의 3사가 결탁하여 계약위반을 하였기때문에 심각한 석탄부족을 보게 되었다는 것으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2,000만불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 (2) 석탄부족의 원인

미국의 석탄매장량은 현재 1조6,500억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국석탄협회(NCA)의 추정은 현재의 소비량을 유지한다면 약 1,600년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미국추정매장량가운데 300워드 이내의 항도에서 채취한 석탄의 량은 1—5와 같다.

따라서 현재의 석탄부족은 정확히 말해서 생산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요인으로 다음의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①탄광의 노동쟁의가 1968년 봄의 웨스트 · 버지너에서 발생하여 수주간에 걸쳐 파업을 한 결과 68년~69년에 걸쳐 각지에서는 대규모의 파업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②원자력발전의 유리성이 이미 1960년대초에 강조되었으므로 석탄생산의 파임을 우려한 석탄회사는 탄광의 개발이나 기술의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③원자력발전의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종래의 석탄화력의 가동율이 높아 짐으로써 석탄수요의 일반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④동시에 석탄수출시장은 확대되었으며 철강업체가 코크스용석탄을 대량으로 구입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노동력의 부족, 연방광산보건안전법의 영향,

(표-5) 미국의 석탄매장량

설비종별	저 유 황 탄		중 유 황 탄		고 유 황 탄		합 계	
	톤 수 (10억톤)	%	톤 수 (10억톤)	%	톤 수 (10억톤)	%	톤 수 (10억톤)	%
레끼청탄	216	13.7	194.9	12.4	314.2	19.9	724.7	46.0
준레끼청탄	387	24.6	1.5	0.1	—	—	388.7	24.7
아탄	406	25.8	41.6	2.6	—	—	447.6	28.4
무연탄	15	0.9	0.4	—	—	—	15.2	0.9
합 계	1,024	65.0	238.4	15.1	314.2	19.9	1,576.2	100

주: 저유황탄; Sulfur 1% 이하, 중유황탄; Sulfur 1.1%~3% 고유황탄; Sulfur 3% 이상  
 자료: Decarlo, et al Sulfur Content of U.S.

Coals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Bureau of Mines (1966)

수출기관의 무계폐성, 환경문제에 입각한 저 Sulfur 탄의 수요증가, 중서부에서 발생한 한파에 의한 교통마비 등이 현재의 석탄부족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석탄부족을 가져오게 한 원인들은 제각기 복잡한 문제성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단시일내의 해결을 가져오기에는 이미 늦어진 감이 있다. 일부업자는 석탄할당을 재조정하여 1968년도의 공급수준의 80%정도의 공급량을 수요가와 절충하고 있으나 단가의 인상이라든지 계약불이행이라든가 기타의 누적된 문제들로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 (3) 환경문제와 저유황탄의 부족

현재 미국에서 발전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석탄 가운데 유황분 1% 이하(일부의 주는 1.5% 이하)의 저유황탄은 약 1/4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1.6~3.5%의 중유황탄을 사용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 환경문제의 격화에 수반해서 전력사업 및 철강공업에 저유황탄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저유황탄의 확보는 날이 갈수록 곤란하여짐으로써 전반적인 석탄문제들은 미국전기사업에 있어서 커다란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조업중에 있는 탄광에서는 증대하는 저유황탄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것은 명백한 일이며 추정매장량 1조200억 ton이나 되는 저유황탄의 신규개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①저유황탄의 채굴코스트는 대개 채굴조건이 나쁘고 신규광산의 개발에 거액의 투자를 요하기 때문에 중고유황탄에 비하여 약5할의 코스트가 상승한다.

②발전용석탄은 현재로서는 청탄이 있으므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수요의 90%가 미시시피강 이 동에서 수요되므로 코로라도, 유다, 와이오밍과 기타 서부 제 주에서 다량으로 생산되어 수송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③ 석탄업계는 자금력이 빈약한 중소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 유황탄으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은 커다란 제약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저 유황탄의 확보는 양적으로나 코스트면으로나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전기사업자가운데는 공해대책도 고려하여 석탄으로부터 저 유황중유나 천연「Gas」로 연료전환을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원자력발전으로 연료전환을 하고 있는 예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매장량이 풍부한 아칸, 청탄의 「전소

화력발전소」건설에 착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다.

1968년에 발전용연료를 석탄으로부터 전환시킨 예로서 버지니아 「이렉트릭·파워사」 「필라델피아·이렉트릭사」가 일부의 석탄을 저유황중유로 바꾸었다.

「더트로이트·에디슨」사는 웨인지방의 대기오염방지조령에 의하여 법적제지를 받게 되었으므로 「테루 「케이 발전소」, 고나」 크리크발전소, 「트렌트·자벨」 발전소의 일부를 천연 Gas로 대체하였다. 또한 「콘슈마·파워사」의 모로발전소에도 석탄으로부터 천연 「Gas」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 (4) 「연방광산보전안전법」과 그 영향

현재 미국석탄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금년 4월1일 발표한 「연방광산보전안전법」에 있다. 이 법률은 탄광인부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광범위하게 작업내용을 대상으로 엄격히 규제된 것으로서 탄진제거, 항내환기규제 또한 높은 수준의 보안설비의 설치를 의무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의 실시가 전기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기에는 시기상조이나 벌써 탄질 또는 출거량의 증가에 그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 법률의 실시에 있어서는 종래부터 석탄업계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벌써 3월30일부터 광산국의 조사관에 의하여 항내점사가 개시되고 있다. 예컨대 Consolidation 석탄회사에서는 최초의 2일간에 40건의 위반이 지적되었다.

이와같은 보안조치의 강화는 탄가상승에 자극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업계의 추정에는 1968년중에 탄가는 약 10% 상승되었는데 1969년도에는 이 법률의 시행, 임금, 자체의 공급가격 등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듯 하다. 석탄판매단가는 탄광의 질, 종류, 계약내용시장 등에 따라서 크게 다르며 그 추이는 표-6과 같다.

이러한 탄가를 올리는데 대한 수요가측의 태도 역시 강경한 것이다. 현재 전기사업체들이 저탄확보에 치중하고 있는 가운데 Consolidate Edison 사를 위시한 미국주요전기사업자들은 연료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요금인상조항을 공급규정에 넣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

「연방광산안전보호법」의 실시가 산탄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도 수치적으로 파악되지는 못하였으나 광산국은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약 5%의 단기적감율이 올것을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정전

(표-6)

## 석탄 가격의 추이

(단위: 달러)

연 도	가 격	(a)	(b)	(a)+(b)	도매물가지수 (1957~ '59=100)	(a)+(b)
		철도수송비/톤	산탄지가격/톤			도매물 가 수
1950		3.09	4.84	7.93	82.9	9.57
1951		3.16	4.92	8.08	91.5	8.83
1952		3.35	4.90	8.25	89.4	9.23
1953		3.33	4.92	8.25	90.1	9.16
1954		3.23	4.52	7.75	90.4	8.57
1957		3.57	5.08	8.65	99.2	8.72
1958		3.58	4.86	8.44	99.5	8.48
1959		3.45	4.77	8.22	101.3	8.11
1960		3.40	4.69	8.09	101.3	7.99
1961		3.40	4.58	7.98	100.8	7.92
1962		3.32	4.48	7.80	100.8	7.74
1963		3.21	4.39	7.60	100.7	7.55
1964		3.11	4.45	7.56	101.2	7.47
1965		3.13	4.44	7.57	102.5	7.39
1966		3.01	4.53	7.54	104.7	7.20
1967		3.00	4.77	7.77	106.3	7.31
1968(E)		3.05	4.85	7.90	108.0	7.31
1969(E)		3.15	5.05	8.20	109.0	7.52

자료: 주제상업위원회; 노동통계국; 광산국

또는 전압저하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위험이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 2. 「Gas」 및 석유의 수급상황

미국전기사업에 있어서 사용되는 발전용연료 가운데 석탄 다음으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Gas」 석유의 수요는 최근의 공해방지를 외치는 여론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증대하는 경향이 있고 1980년에는 현재보다 20% 가량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미국전기사업체는 천연 「Gas」를 국내업자에게, 석유의 대부분은 수입되는 저유황유에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연료구성은 그후 2,3년간은 원활하게 소통되리라 믿지만 그 나름대로의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 (1) 천연 「Gas」의 부족현상

미국의 천연 「Gas」 매장량은 1,200조ft<sup>3</sup>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의 연간 소비량이 20조 ft<sup>3</sup>이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별문제점이 있는 것같지 않다.

그러나 잠재 Gas 위원회(P.G.C)의 추정에 의하면

미국(Alaska포함)의 천연 Gas 매장량은 1,227조ft<sup>3</sup>로써 그 가운데는 확실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287조 ft<sup>3</sup> 밖에 되지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은 논의되는 공해대책상 발전연료를 천연 「Gas」로 대체시키는 전기사업체 또는 원자력 발전 지역의 응급조치로 피크용 개스터빈의 설치를 신설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천연 「Gas」의 수요는 1967년에 12%, 1968년도에 9%로 대폭늘어나고 있다.

이와같이 수요가 증대되어감에 따라 생산이 증대하고 있는 반면에 신규 「Gas」원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수급상태는 앞으로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것이다. 특히 동구지구에의 부족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주요 Pipeline 회사의 예측은 1969년 겨울에는 약 20억 ft<sup>3</sup>(일당)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Gas」수요는 10년전 연간 약 12조 ft<sup>3</sup>이었던 것이 1968년도에는 20조ft<sup>3</sup>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Gas」자원의 개발은 196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60년에 831개소가 1968년도에는 약 반정도의 429개가 줄어 들었다.

1968년 겨울 일부지역에는 「Gas」 부족의 현실적 영향이 나타났다. 예컨대 중서부에 있는 「Gas」회사는 신규확장계획을 축소하고 기업들은 1월의 최대부하시의 6일간 작업을 정지했다. 북부—중앙 pipeline은 「Gas」의 공급부족때문에 그 확장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 (2) 연방동력위원회(FPD)의 「Gas」가격 인상경향

미국의 「Gas」가격은 1954년이래 「연방동력위원회」(FPC)가 규제하고 있으나 가격문제를 둘러싸고 수년래 「Gas」채굴업자와 FPC, 「Gas」공급업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나, 한편 「Gas」채굴업자는 장기간에 걸쳐 「Gas」가격이 억제됨으로써 신규 「Gas」원개발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강력히 가격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FPC 또는 공급업자는 수요가보호의 입장을 내세워 「Gas」가격의 인상에 극력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Gas」공급부족은 1968년 3/4분기부터 나타나서 증대의 원산지가격의 인상반대의 입장을 내세운 공급업자가 신규 Gas 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Gas 가격을 인상하려는 입장으로 바꾸고 최근에는 FPC도 약간의 인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 경향이 전환되고 있다.

## (3) L.N.G.(축소된 천연가스)수입의 움직임

이러한 국내천연 「Gas」의 공급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전기사업자나 공급업자가운데 외국으로부터 L.N.G 또는 천연 「Gas」의 수입을 시작한 것이 눈에 띄고 있다. L.N.G에 있어서는 이미 북서부나 동부 해안에서는 수입이 시작되었고 증대 가격문제를 고려하여 발전용에는 긴급시에만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국산천연 「Gas」와 거의 같은 수치로 수입되고 있다. pipeline 회사는 캐나다로부터 천연 「Gas」를 수입하고 있다. 북부천연 「Gas」회사는 캐나다로부터 10조ft<sup>3</sup>의 천연 「Gas」를 수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기타 수개사도 이러한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L.N.G의 경우 방대한 설비투자를 요하며 대량의 수입은 어려운 것이 그 실정이고 더구나 캐나다의 천연 「Gas」공급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장래로 보아서는 반드시 전기사업에 있어서의 연료사정은 밝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천연 「Gas」의 개발을 일층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Gas」원 조사부터 실제의 생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적인 지연이 있으므로 금년 겨울이후의 공급부족은 일층 심각하여 지리라고 예상되는 것이다.

## (4) 국내석유의 공급부족과 석유정책

미국발전용연료 가운데 석유가 접하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증대는 주로 수송 Cost의 지장이 없이 전기사업은 수입연료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나 국내탄가 인상에 대한 영향은 전기사업에 있어서 저유황중유의 수요는 급속히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는 동안 1959년이래 실시하게 되었던 석유수입할당제도가 크게 장애가 되어 왔으므로 1968년도에는 국산유가 50여%가 사용되던 것을 일부 사용에 국한되고 있는 것이 그 실정이다.

(주: 현행 수입할당제도는 1959년 3월 아이젠하워 정권하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이 제도의 목적은 저가격의 외국석유의 유입으로 인하여 국내석유생산과 탐광활동을 대폭으로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따라서 국내산업보호와 주요 에너지에 있어서 석유의 중간등의존을 피하여 군사적, 경제적인 국가안전보장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증대의 미국전기사업은 국내산의 남은 연료유를 구입하던 것이 50%정도이었으나 작년은 사태가 일관하여 상반기중의 수요가 39%를 점함으로써 기존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의 원인으로 현재의 미국석유의 수급상태는 증대하는 원유수요에 국내석유공급력이 뒤따르고 있는 상태에 있고 국내의 석유매장량도 「알래스카·노드스 로프」의 대유전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힘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70년대 후반이후는 국내의 석유공급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으로 국내중소유원보호를 함으로써 이 이상의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지 못하도록 어떠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968년도에 발견된 North slop 대유전(Alaska)의 합계 매장량은 500억 바レル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 대유전의 출현은 미국석유공급력을 호전시키고 이에 따라서 증대하는 석유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므로 본격적으로 공급할 70년대 후반에는 미국은 급수요의 30% (현재 21.5%)를 수입원유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참고적으

로 1990년도의 미국의 일차 에너지의 상정은 표--7과 같다.

(표--7) 1990년 제1차 에너지 구성(Mobile의 시산)

		1 9 6 8	1 9 9 0
수	력	4 (%)	3 (%)
원	자	1	20
석	탄	20	20
천	스	30	20
석	유	45	37
<b>석 유 내 역</b>		(b/d)	(b/d)
수	요	1,300만	2,300만
수	입	280만	800만
노	스·스	—	200만
합	성 석 유	—	200만
국	내 원 유	1,020만	1,100만

자료 : OPEC 제1회 세미나(1969년 7월)

이에 대하여 닉슨대통령은 작년 4월 석유수입제한에 관한 자료특별조사위원회(Cabinet Task Force on Oil Import Control)를 구성하였던 바 동 위원회의 최종 보고는(금년 2월 작성) 석유수입에 관세도입과 석유수입할당제도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여 내용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국석유 정책은 새로운 발족한 석유정책위원회(OPC)에 맡겨 검토케 하고 있으며 수입할당제도는 최근에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고 있는 중이다.

「Task Force」는 수입관세도입론과 할당제도수정계속론이 팽팽히 대립되었으나 쌍방은 안전보장문제에 와서는 의견을 일치하고 동반국 의존경감·서반구우선·국내공급원의 확보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에서 있다. 양 권고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수입관세도입론」……노동장관, 로저스국무장관, 레어드국방장관, 케네디재무장관, 링컨진급준비국장……

현행의 석유수입할당제도를 폐지하고 당면 국내석유가격(사우스, 루이지아나의 비중 30도의 원유원가)을 바렐당 3.30\$부터 3.00\$까지 인하시키기 위해 관세제도를 도입한다. 즉, 현재의 원유관세는 공급원에도 불구하고 일당달 10.5센트(바렐러)이므로 금주 석유안정공급원을 서반구에다 두었었는데 그 때문에 새로이 설정된 관세는 동반구원유관세 1.45 달러서반구관세 1.25\$, 캐나다, 멕시코는 현

행 10센트의 차별관세를 낮게 했기 때문이다.

「할당제도수정계속론」……히켈내무, 스탠즈상무장관……관세란 국내석유가격을 인하시키기 때문에 국내석유의 감소와 신규개발을 저하시키고 석유안전보장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당면 현행 수입할당제도를 계속하려면 현행 생산에 대한 수입비율을 처리량에 대한 수입할당으로 개정하고 그의 비율도 현행 12.2%를 금후 5년간 1%가량 인상하도록 권고.

### (5) 석유수입할당제도와 전기사업

「코먼·웰스」·에디슨사가 시카고지역의 대기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릿치랜드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유황국내탄을 저유황수입에서 중유로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중유수입신청을 자발적으로 개시하였던 바 미국석유수입할당제도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크나 큰 정치문제로 비약하고 있다. 이 문제의 난점은 단지 「코먼·웰스」사의 신청을 인가하는 데 한한 것이 아니고 이 신청을 인정하면 현재 외국중유의 수입이 대폭규제되고 있는 제2지구(중양부15주) 등의 수입추가신청을 전부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석유수입대책에 기본적인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현행할당제도에에는 전국을 제1~5지구로 나누어 자기 석유수입할당량을 결정하였다. 제1지구(동부연안 16주)는 베비주엔라의 정유소로부터 탱커(Tanker 석유운송선)로 직접 대량으로 연료유를 수입할 수 있

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종래부터의 역사적특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66년도에는 실질상 필요한 석유수요를 보통 수입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에 대해 「시카고·디트로이트」를 포함한 제2지구는 증유수입량을 연간 21.9만바렐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방지외 국내증유부족은 외국 증유에 대해 수요를 대폭으로 증대시켰다. 현재 동 지구에 있어서 수입추가신청은 합계 2,500만바렐 이상이 된다.

◎「커먼·웬스사」에 뒤이어 「디트로이트·에디슨」사도 테루레이 발전소의 예비연료관제로 연간 350만바렐의 수입추가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후 3~4월 지난후 많은 논쟁을 야기시키고 특히 직접 영향을 받은 석탄업계는 강경한 반대운동을 전개시킨 바 있다.

◎석탄업계는 이 할당제도가 그 균형을 잃고 대기오염문제때문에 석탄사용자가 외국석유를 구입코져 발주함으로써 현재 미국 연간 석탄소비량의 1/2 이상을 점하고 있는 이를 15주의 석탄수요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국석탄정책회의·전국석탄협회 및 광산노동자연합들은 다같이 반대하고 있다.

더욱 전국석탄정책회의부회장은 상원내무위원회의 광산부회에 작년 1~9월 동안 석탄수요는 630만ton (4.4%)감소하고 또 한편 수입석유의 추가수요는 1,200ton, 석탄상당량(15.2%)이나 증대된 것을 지적하고 석유할당량의 증대가 석탄산업에 가져온 영향에 경고를 주고 있다.

그러나 수입추가신청을 받은 석유수입상소위원회(OIAB)는 전기사업에 있어 외국증유수입의 긴급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할당기관이 처하고 있

는 내무성도 “비상조치”로써 「코먼·웬스·에디슨」사를 시초로 증서부(제2,3,4지구)에의 실질적수입할당의 증액을 감행하였다. 금후의 수입추가는 결국 케이스 바이·케이스로 판단되는 것으로써 “비상조치”로 현행 할당제도의 범주내에서 운용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석유수입할당제도를 둘러싼 문제는 아직도 남은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종래 전기사업이 작은 수입할당으로서 심한 대기오염규제에 곤란을 받아 국내 석유업자나 「석유·Gas」공급자들이 보증할 수 없었던 저유황연료공급에도 일단무시적인 규제를 세워놓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최근의 미국전기사업을 감싸고 있는 연료사정은 증대하는 전력수요에 충분한 공급을 보지 못하며 그 위에 환경문제에 입각한 사용연료의 계약을 받는 등 복잡한 사태가 속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때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특히 현안의 연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자력은 최근에 발전소의 입지문제, 건설지연 따라서 기술적인 고속증식로 실용화의 지연등으로 여러가지 요인이 얽혀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기사업에는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없는 요소가 개재해 있는 것이다. 또한 환경보호규제문제는 금후 더욱 합리적으로 또는 지역의 실태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하여 질 수 밖에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기세는 심각한 방향으로 움직여 지고 있는 것이 명확한 것이다.

따라서 연료 공급부족과 환경보호규제의 강화는 전기사업에 있어서 증차대한 문제로 다루어 지고 있으며 전기사업에 있어서 연료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

☆

☆

☆

☆